

집단범주화, 개인 및 집단의 수행수준이 외집단 구성원 선택에 미치는 효과

장 보 현* 한 덕 응 장 은 영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성균관대 심리학과 성균관대 응용심리연구소

내집단과 개인의 수행수준 및 집단간 범주화의 특출성 수준이 개인이동전략의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외집단에 비해서 내집단을 더 편애하는 경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하여 성별이 내집단과 개인의 수행수준 및 집단간 범주화의 특출성 수준의 효과를 조절하는지도 알아보았다. 대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성별범주를 달리해서 집단 범주화의 특출성을 조작하였으며, 집단 과제를 수행하고 나서 다른 집단과 수행을 비교하여 집단 수행수준을 조작하고, 옆 사람과의 수행을 비교하여 개인 수행수준을 조작하였다. 결과를 보면, 성공한 집단에 비해서 실패한 집단이 개인이동전략을 더 사용하였다. 또한 집단이 실패하고 개인이 성공하면 개인이 실패한 경우보다 개인이동전략을 더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집단 범주가 특출한 조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집단이 실패할 때 개인이 성공하면 개인이 실패한 경우보다 개인이동전략을 더 사용하였으나 집단 범주화가 특출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남성동성으로 범주화된 조건보다 여성동성으로 범주화된 조건에서 집단이 실패했을 때 개인이 성공하면 개인이동전략을 더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집단 범주화, 내집단 수행수준, 개인 수행수준, 개인이동전략.

* 교신저자 : 장보현,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시 남구 주안 6동 969-2번지
E-mail : lowprofile@naver.com

우리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경쟁한 후 열등한 지위에 처하게 되면, 다른 집단으로 옮기려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집단에 남아서 지위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가? 또한 이러한 행동전략은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내에서 정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이를 높이기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한 이론부터 살펴보자.

사회정체성 이론

Tajfel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자기 개념이나 자존심을 유지하고 추구한다고 가정하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신을 집단의 구성원으로 범주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내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긍정적인 정체감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이 전략 중에는 개인적으로 노력하여 지위를 높이려는 개인전략과 집합적으로 노력하여 집단의 지위를 높이려는 집합전략인 사회경쟁 및 사회창조성이 제안된 바 있다(한덕웅, 2002, 286쪽).

구체적으로 Tajfel과 Turner(1979, 40쪽)는 사회경쟁(social competition), 사회창조성(social creativity), 개인이동(individual mobility)의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사회경쟁전략은 내집단이 외집단과 비교할 때 집합행동을 통해서 내집단의 열등한 속성을 현실에서 개선함으로써 외집단보다 우월해지려는 시도로서 나타난다. 사회창조성 전략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지위나 세력이 열등한 조건에서 내집단이 지니는 긍정적 속성을 더 독특하게 만드는 전략

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이동전략은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지위나 세력이 나쁜 조건에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을 떠나서 긍정적 정체성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른 집단에 속하려는 시도이다(한덕웅, 2002, 285쪽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 범주화의 수준이 특출해지는 경우에 집단과 개인의 수행수준에 따라서 개인이동전략의 사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별의 효과도 살펴보고자 한다. 즉, 같은 정보에 대해서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정보를 해석하고 이에 대처하는 행동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에 근거하여(Stangor, Swin, Van Allen, & Sechrist, 2002), 실제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고 흔히 지각되는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이러한 전략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아보려고 하였다.

성별에 따른 정체감 유지 전략

선행연구들을 보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더 경쟁전략을 사용한다는 연구들이 있고(Rubin, Brown, 1975; Forsyth, 1990에서 재인용), 집단간 경쟁상황을 최소집단 패러다임으로 구성하여 성별의 효과를 알아본 연구들에서는 여성들의 경우에 내집단에 대한 편애가 더 강력하게 나타남을 보였다(Bornstein, 1983; Bourish, 1994; Gaertner & Insko, 2000). 또는 남성과 비슷하게 여성들이 경쟁적이라는 연구들도 있다(Deaux, 1976, Nemeth, 1973; Forsyth, 1990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구들을 보면, 집단끼리 혹은 개인끼리 경쟁하는 상황에서 남성보다 여성들이 내집단에 대한 편애나 애착을 더 보이고, 이

는 다시 집단에 계속 남으려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남성 혹은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성공하거나 실패한 경우에 더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이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때 개인이동전략을 차별적으로 사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인의 수행을 더 특출하게 지각하는지 혹은 집단의 수행을 더 특출하게 지각하는지 여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제 개인과 내집단의 수행수준이 개인이동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범주화의 특출성 수준과 성별이 이들의 효과를 어떻게 조절할지 살펴보자.

내집단과 개인의 수행수준이 미치는 효과

내집단 수행수준의 효과

내집단의 성공과 실패의 수행수준은 집단의 일원으로서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발생하는 긍정적인 자기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내집단이 수행에서 성공하면 긍정적 정체감을 경험하고, 내집단 구성원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게 되며(Worchel, Andreoli, & Folger, 2000), 이로 인해서 개인이동전략을 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Schmader와 Major(1999)는 사람들은 내집단의 수행을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내집단 수행수준이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내집단이 실패한 조건보다 내집단이 성공한 조건에서 긍정적인 자기평가나 사회정체성이 더 높아서 이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한편, McIntyre, Paulson과 Lord(2003)는 어떤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 집단 구성원들에게 위협이 되어 이들의 실제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내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반대되는 정보를 듣는 것만으로도 내집단 구성원의 과제 수행이 향상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어려운 수학과 과제를 풀게 하였는데, 피험자 중에서 여성이 실험참가에서 더 타당하고 신뢰로운 결과를 준다는 글을 읽은 여성 참가자들은 이러한 글을 읽지 않은 여성 참가자들에 비해서 수학과 과제에서 실제 수행수준이 더 높았다. 더불어 이러한 일반적인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글뿐만 아니라 어떤 한 여성의 성공을 기술한 글을 읽은 여성 참가자들도 이러한 글을 읽지 않은 통제조건의 여성 참가자들보다 실제 수행수준이 더 높았다. 연구자들은 내집단 성원인 어떤 여성이 성공했다는 정보가 개인이 지닌 내집단에 대한 여성이 수학을 잘 못한다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완화시키고 이는 다시 실제 수행을 높였다고 해석했다. 비록 이 연구에서 실제로 고정관념이 완화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내집단의 성공경험이 부정적 고정관념을 완화시켰고, 이는 내집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체감을 경험하게 만들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내집단의 실패는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낮추고, 이는 그 집단을 떠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내집단이 성공한 조건보다 내집단이 실패한 조건에서 개인이동전략의 사용빈도가 더 높다.

한편, Worchel 등(2000)은 집단 안에서 자신의 위치(position) 또한 집단간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거하여 추론하면 내 집단 안에서 개인의 수행수준도 그 개인이 내 집단에 머무르지 혹은 떠날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음으로 개인 수행수준의 효과를 다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자.

개인의 수행수준의 효과

대인간 비교에서 개인의 수행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면 저조할 때보다 자기평가가 높아진다(Taylor, Wayment, & Carillo, 1993). 그리고 집단간 비교에서 얻은 집단의 수행수준뿐 아니라 대인간 비교에서 얻은 개인의 수행수준에 의해서도 자기평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성공한 집단에서 개인이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집단에서 개인이 성공한 경우 모두 집단 내에서 개인이 잘하였다는 점은 유사하다. 이렇게 개인 수행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는 동일하게 성공한 수준을 보였다고 해도,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집단의 수행수준이 다른 경우에 개인은 자신의 수행수준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선행 연구에서 이 두 조건간 자기평가가 다른 점이 확인되었다(한덕웅, 장은영, 2001). 따라서 이러한 해석으로 보면, 내집단에서 개인의 수행수준은 개인이동전략의 사용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집단내 개인의 수행수준이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가운데 McFarland와 Buehler(1995)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를 보면, 비록 개인의 수행수준이 같아도 집단내 다른 구성원의 수행수준이 더 낮은 조건에서 자기평가가 더 높았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더 확장하여 집단간 수행수준과 집단내 개인의 수행수준이 모두 제공되었을 때 개인이동전략의

사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 두 변인을 함께 조작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Worchel 등(2000)은 내집단의 수행수준과 내집단 안에서 개인의 수행수준을 성공 혹은 실패로 조작하여 내집단에 대한 동일시를 측정했다. 결과를 보면, 내집단이 성공한 조건에서 개인도 성공하면 내집단에 구성원으로 동일시하는 수준이 다른 조건들에 비해서 가장 높았다. 반면에 내집단이 실패하고 개인이 성공하면 내집단 동일시 수준이 다른 조건들에 비해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내집단이 실패하고 개인이 성공한 조건에서는 개인이 실패한 조건에 비해서 내집단 동일시가 더 낮고 긍정적 정체감도 더 낮게 경험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 개인이동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내집단이 성공한 조건에서는 긍정적 정체감이 비교적 높게 유지되므로 개인의 수행 수준에 의해서 개인이동전략의 사용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내집단이 실패한 조건에서는 개인이 실패했을 때보다 개인이 성공했을 때 개인이동전략의 사용빈도가 더 높고, 내집단이 성공한 조건에서는 개인의 수행수준에 따라서 개인이동전략의 사용빈도는 차이가 없다.

집단범주 특출성의 효과

본 연구에서는 집단 및 개인 수행수준에 더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어떤 정보를 더 특출하게 떠올리는가에 따라서 개인이동전략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선행 연구에서 이러한 특출성의 효과는 다루어진 바 있다. 예를 들어, 한덕웅과 장은영

(2001)의 연구에서는 내집단과 개인의 성공 혹은 실패 경험이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수행수준과 집단의 수행수준의 두 가지 정보 가운데 어떤 정보가 더 특출하게 활성화되는지에 따라서 자기평가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내집단 수행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는 집단의 결과가 자기평가에 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집단이 성공한 경우에는 개인의 수행수준에 따라 자기평가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개인 수행정보가 특출한 경우에는 성공한 집단에서 저조한 사람보다 실패한 집단에서 성공한 사람의 자기평가가 더 높았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집단간 비교가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내집단의 수행수준이 자기평가에 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단간 비교 상황을 집단 범주화를 특출하거나 특출하지 않게 조작하여 행동적 측면에 해당하는 개인이동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집단간 비교의 수준이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로 Mussweiler와 Bodenhausen(2002)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남자대학생들에게 남성에 대한 중립적인 문장(중립조건), 매우 친절한 남성에 관한 문장(내집단 조건), 마지막으로 매우 친절한 여성에 관한 문장(외집단 조건)을 읽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친절한지 묻는 질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결과는 통제집단에 비해 여성(외집단)의 기술문을 읽은 참가자들이 자신을 매우 친절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였고, 남성(내집단)의 기술문을 읽은 참가자들은 자신을 매우 친절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러

한 결과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외집단 성원을 기술한 글을 읽은 조건에서는 자신과 상대방과 자신의 차이점을 찾게 되므로 대비효과가 발생하여 글의 주인공보다 자기평가가 더 낮아지고, 내집단 성원을 기술한 글을 읽은 조건에서는 유사점을 찾게 되므로 동화효과가 발생하여 글의 주인공만큼 자기평가가 높아졌다고 해석하였다.

이 결과를 본 연구의 틀로 보면 친절한 외집단(여성들)의 글을 읽은 조건은 집단간 범주화가 특출하면서 외집단에 비해 내집단의 수행수준이 저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친절한 내집단(남성들)의 글을 읽은 조건은 집단간 범주화가 특출하지 않으면서 외집단에 비해 내집단이 우수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성별 범주화가 특출하고 내집단이 실패한 조건에서 자기평가가 낮았고, 성별범주화가 특출하지 않으면서 내집단이 성공한 조건에서는 자기평가가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는 범주화가 특출하면서 내집단이 성공한 조건과 특출하지 않으면서 실패한 조건은 다루지 않은 셈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 조건들을 다루고, 개인의 수행 수준의 효과까지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 범주화의 수준이 특출해지면, 내집단의 수행수준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므로 집단의 수행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집단이 성공하면 긍정적 정체감이 높아지지만, 집단이 실패하면 긍정적 정체감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집단이 실패한 조건에서 개인이 성공했을 때 개인이동전략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반면에 집단간의 범주화 수준이 덜 특출해지면, 집단의 수행수준에 의해서 영향받기보다는 개인의 수행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개인이 실패한 조건보다 개인이 성공한 조건에서 개인이동전략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1. 집단 범주화가 특출하고 내집단이 실패한 조건에서는, 개인이 실패했을 때보다 개인이 성공했을 때 개인이동전략의 사용 빈도가 더 높다. 반면에 집단 범주화가 특출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개인이 실패했을 때보다 개인이 성공했을 때 개인이동전략의 사용 빈도가 더 높다.

성별에 따른 개인이동전략의 사용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개인이동전략의 선택이 달라지는지도 알아보려고 하였는데, Gaertner 등(2000)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영역에 범주화되면, 남성과는 달리 자신에게 이득이 기대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집단에 대한 편애를 보임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여성들이 사회적인 연대가 더욱 필요한 사회적 구조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이들의 관점에 의하면 경쟁상황에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이는 내집단 편애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Schopler 등(2001)의 연구에서도 여성과 남성 모두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경쟁하게 될 경우에 좀 더 경쟁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유의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여성 집단이 좀 더 상황에 반응적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동일한 경쟁 조건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좀 더 경쟁적이고 내집단 편애를 보이는 행동을 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집단간 경쟁전략을 더욱 사용한다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개인이동전략은 덜 선택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동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가정된 조건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개인이동전략을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 조건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집단간 범주화 수준이 특출하면서 집단은 실패하고 개인은 성공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집단이 성공하면 긍정적 정체감이 높아지지만, 집단이 실패하면 긍정적 정체감이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러한 낮아진 정체감을 다시 회복하고자 계속 그 집단에 남아 있으려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이동전략을 남성보다 덜 사용하게 만들 것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2. 집단간 범주화 수준이 특출한 경우에 집단이 실패하고 개인이 성공한 조건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개인이동전략을 덜 사용할 것이다.

방 법

실험절차

참가자들은 4명이 함께 실험에 참여하였다. 그 중에서 2명은 실험협조자로 혼성 집단으로 구성되었으며, 2명씩 근접해 있는 각각 다른 실험실에서 과제를 수행하였다. 참가자들이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에 여학생은 빨강 명찰을, 남학생은 파랑 명찰을 가슴에 부착하였다. 실험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지시문을 읽으면서 진행되었는데, 컴퓨터 사이에 칸막이

를 두어서 참가자는 다른 사람의 화면을 볼 수 없었다. 참가자들이 모두 컴퓨터 앞에 앉으면 실험자가 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졸업 이후 학생들의 직무수행능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나서 화면에 자신의 자리 위치와 옆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고 옆방의 참가자들의 자리 위치 및 성별도 보여주었으며, 현재 자신의 옆자리에 있는 사람과 자신이 한 팀이 되고 다른 옆 실험실에 있는 두 사람이 나머지 한 팀이 되어서 경쟁하게 된다고 알려주었다. 다음으로 지각탐지과제를 3분 동안 두 번 수행하였는데, 처음 3분간 과제를 수행하고 나서 집단과 개인의 수행 수준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에서는 함께 팀을 이루게 되는 구성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함께 수행했던 옆 사람과 다른 실험실의 2명 중 옆 사람과 성별이 같은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직접 고르게 하였다. 곧이어 조작점검문항과 부가적 종속치에 응답하였으며, 모든 응답을 하고 나면 두 번째 지각탐지능력 검사를 실시하고 실험을 종료하였다.

참가자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90명이 12조건에 15명에서 18명씩 무선할당되었다¹⁾.

실험설계

3(집단범주화의 특출성 수준: 남성동성/여성

1) 구체적으로, 남성동성과 여성동성조건의 경우 각 조건당 15명으로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혼성조건의 경우 17-18명으로 구성하였다.

동성/혼성) × 2(내집단의 수행수준: 성공/실패) × 2(개인의 수행수준: 성공/실패)로 이루어진 삼원 완전무선요인설계를 사용했다.

실험과제

지각탐지능력검사로 소재용(2002)의 과제를 수정해서 사용했다. 이 검사에서 참가자들은 16개의 칸으로 나뉘어 있는 4 × 4 행렬의 그림을 보고나서 숫자와 문자(영어철자)의 개수를 각각 탐지해야 했다.

독립변인의 조작

집단범주화의 특출성 수준

참가자들이 실험실에 도착하면 여성은 빨강색 명찰을, 남성은 파랑색 명찰을 스스로 부착하게 하여 자신의 성별을 인식하게 하게 하였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자신의 위치 및 소속집단 구성원을 보여주었는데, 이때 성별 구성을 달리하여 집단 범주화의 특출성 수준을 조작하였다. **특출성이 높은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자신이 속한 팀은 성별이 같은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남성)팀이라고 알려주었다. **특출성이 낮은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성별이 다른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혼성팀이라고 알려주었다.

내집단의 수행수준

내집단의 수행수준은 성공 혹은 실패로 조작하였다. 집단이 성공한 조건에서는 지각탐지능력 검사에서 자신과 옆 사람의 점수를 합한 집단점수가 옆 실험실의 두 사람의 집단점수보다 높다고 알려주고 그래프도 제시하였다. 집단이 실패한 조건에서는 자신과 옆 사람의

점수를 합한 집단점수가 옆 실험실의 두 사람의 집단점수보다 낮다고 알려주고 그래프도 제시하였다.

개인의 수행수준

개인의 수행수준은 성공 혹은 실패로 조작하였다. 개인이 성공한 조건에서는 지각탐지 능력 검사에서 개인의 지각탐지능력 점수가 옆 사람의 개인점수보다 더 높다고 알려주고 그래프도 함께 제시하여 알려주었다. 개인이 실패한 조건에서는 개인의 점수가 옆 사람의 개인점수보다 더 낮다고 알려주고 그래프도 함께 제시하였다.

종속변인의 측정

외집단 구성원 선택

두 번째 검사에서 같이 수행하고 싶은 대상을 선택하게 하여 종속치로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개인이동전략을 측정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측정하였거나 남은 집단과제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싶은 구성원을 직접 선택하게 하여 행동적인 측면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와 같이 행동적인 측면으로서 개인이동전략을 측정하였다. 즉, 과제를 시작할 때에 보여주었던 자리 배치도를 다시 보여주고, 현재 같은 팀에 있는 옆 사람과 다른 실험실(외집단)에서 자신의 옆 사람과 동성인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게 하였다. 한편, 상대팀인 외집단은 항상 혼성팀으로 구성하여 고정시켰다. 이렇게 외집단 구성원을 고정시켜 놓고 선택하게 한 이유는 외집단의 반대 성별을 선택한 경우에 집단범주와 성별범주가 혼합되기 때문이었다.

의도

두 번째 지각탐지 검사에서 같은 집단으로 함께 수행할 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그러한 의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개의 문항에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두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모형은 공통요인모형으로 주축분해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공통분의 초기값은 중다상관자승(SMC)으로 추정하였다. 1요인구조가 타당화되었으며 각 문항의 내용과 요인부하량은 ‘당신은 앞으로 두 번째 지각탐지 과제를 할 때 실험실에 있는 사람 중 한 명과 수행하고 싶습니까?(.83)’와, ‘당신은 앞으로 두 번째 지각탐지 과제를 할 때 옆 사람과 얼마나 함께 수행하고 싶습니까?(.69)’이었다. 이 문항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이었다.

자료 분석

집단범주화의 특출성, 내집단의 수행수준 그리고 개인의 수행수준에 따라서 개인이동전략의 선택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linea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개인이동전략을 사용하려는 의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계수(α)를 산출하였다. 또한 집단범주화의 특출성, 내집단 및 개인의 수행 수준이 개인이동전략을 사용하려는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변량분석을 하였다. 빈도분석과 변량분석에서는 성차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여성동성 조건과 남성동성 조건을 구분하여 3(집단 범주화의 특출성 수준; 여성동성/남성동성/혼성) \times 2(집단의 수행

수준) × 2(개인의 수행수준)로 분석하였다. 빈도분석은 SAS 9.0판을 사용하였고, 이외 나머지 통계분석은 SPSS 12.0판을 사용하였다.

결 과

독립변인의 조작효과 점검

본 연구에서는 집단범주화의 특출성 수준의 조작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당신과 옆 사람은 옆 실험실의 두 사람과 비교하여 어떤 성별집단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까?’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성별구성이 동성인 경우에 참가자들은 동성집단과 더 유사하다고 정확하게 응답했고, 성별구성이 혼성인 경우도 혼성집단과 더 유사하다고 정확하게 응답하였다. 또한 ‘당신과 옆 사람은 서로 성별 구성이 얼마나 유사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응답을 3(집단범주화) × 2(집단의 수행수준) × 2(개인의 수행수준)로 변량 분석한 결과, 집단 범주화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F_{(1,178)}=451.94, p<.001$). 그리고 집단범주화 수준을 Scheffe로 사후분석한 결과를 보면, 동성으로 범주화된 남성동성 조건($M = 5.87$)과 여성동성 조건($M = 5.93$)의 참가자들이 혼성조건($M = 2.29$)의 참가자들보다 성별이 서로 유사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도한 대로 혼성조건보다 동성조건에서 집단이 서로 유사하다고 지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특출성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동성 조건내에서 남성동성 조건과 여성동성 조건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집단 수행수준의 조작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서 ‘당신과 옆 사람의 집단점수는 옆 실험실의 두 사람의 집단점수와 비교하여 어떤 편이었습니까?’ 라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집단이 성공한 조건의 참가자들은 나와 옆 사람의 점수를 합한 집단점수가 높다고 모두 정확하게 응답하였고, 집단이 실패한 조건의 참가자들은 옆 실험실의 두 사람의 점수를 합한 집단점수가 더 높았다고 정확하게 응답하였다. 또한 ‘당신과 옆 사람의 집단점수는 옆 실험실 두 사람의 집단점수와 비교하여 우수한 편이었습니까?’라는 문항에 응답한 결과를 3(집단범주화) × 2(집단의 수행수준) × 2(개인의 수행수준)로 변량 분석한 결과, 집단 수행수준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F_{(1,178)}=151.90, p<.001$). 즉, 집단이 실패한 조건($M = 2.23$)보다 집단이 성공할 조건($M = 5.82$)에서 자신과 옆 사람의 점수를 합한 집단점수가 옆 실험실 두 사람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우수하다고 지각하였다.

개인 수행수준의 조작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당신은 옆 사람과 비교하여 지각탐지 검사 점수가 어떤 편이었습니까?’ 라는 문항에 응답하게 하였다. 개인이 성공한 조건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지각탐지 검사 점수가 옆 사람에 비해서 높다고 정확하게 응답했고, 개인이 실패한 조건의 참가자들은 자신보다 옆 사람의 지각탐지 검사 점수가 높다고 정확하게 응답했다. 또한, ‘당신은 옆 사람과 비교하여 지각탐지 과제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라는 문항에 응답한 결과를 3(집단범주화) × 2(집단의 수행수준) × 2(개인의 수행수준)로 변량 분석한 결과, 개인 수행수준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F_{(1,178)}=129.06, p<.001$). 즉, 개인이 실패한 조건($M = 2.31$)보다 개인의 성공한 조건($M = 5.21$)에서 자신이 옆 사람보다 지각탐지 과제

를 더 잘 했다고 지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정한 세 가지 독립변인은 성공적으로 조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외집단 구성원의 선택빈도 분석

내집단과 개인의 수행수준 및 집단 범주화의 특출성 수준에 따라서 개인이동전략이 어

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개인이동전략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후 두 번째 과제를 함께 수행할 사람으로서, 자신의 옆 사람과 그리고 외집단 성원 중에서 옆 사람과 성별이 같은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게 했을 때, 자신의 옆 사람이 아닌 외집단 성원을 선택한 빈도로 측정하였다. 각 실험 조건의 빈도는 표 1과 그림 1로 제시하였다.

표 1. 집단범주, 집단 및 개인 수행수준에 따른 외집단 구성원의 선택빈도(백분율)

| 집단범주 | 집단 수행수준 | 개인 성공 | | 개인 실패 | | 전체 | |
|------|---------|-------|----------|-------|----------|----|----------|
| | | N | (%) | N | (%) | N | (%) |
| 남성동성 | 집단 성공 | 1 | (6.67%) | 5 | (3.33%) | 6 | (20.00%) |
| | 집단 실패 | 8 | (53.33%) | 1 | (6.67%) | 9 | (30.00%) |
| | 전체 | 9 | (30.00%) | 6 | (20.00%) | 15 | (50.00%) |
| 여성동성 | 집단 성공 | 0 | (0.00%) | 1 | (6.67%) | 1 | (3.33%) |
| | 집단 실패 | 11 | (73.33%) | 1 | (6.67%) | 12 | (40.00%) |
| | 전체 | 11 | (36.33%) | 2 | (6.66%) | 13 | (43.33%) |
| 혼성 | 집단 성공 | 2 | (11.76%) | 3 | (17.64%) | 5 | (14.70%) |
| | 집단 실패 | 6 | (33.33%) | 7 | (38.88%) | 13 | (36.11%) |
| | 전체 | 8 | (22.85%) | 10 | (28.57%) | 18 | (25.7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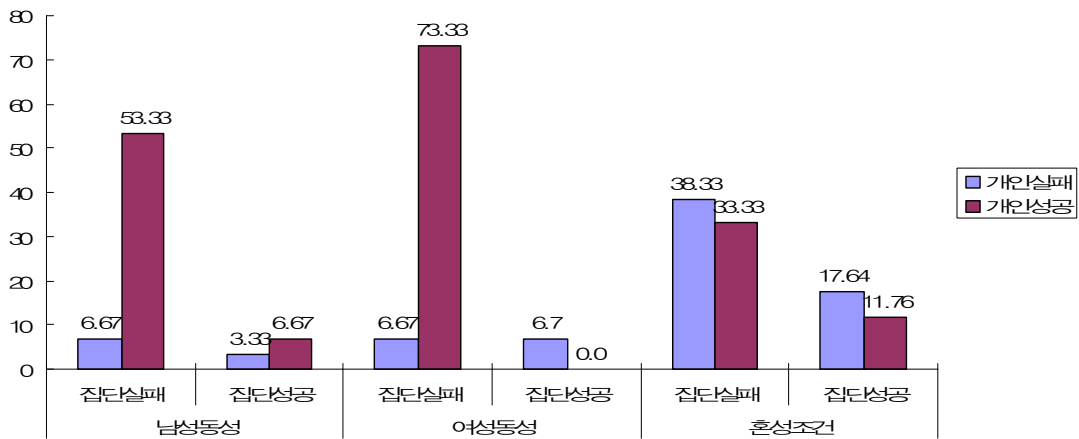


그림 1. 집단범주화, 집단 및 개인 수행수준에 따른 외집단 구성원 선택율

표 2. 외집단 구성원 선택 빈도 분석

| 변량원 | df | X ² |
|-----------------------|----|----------------|
| 집단범주화 | 2 | 1.43 |
| 집단 수행수준 | 1 | 7.50** |
| 개인 수행수준 | 1 | 0.67 |
| 집단범주화*집단 수행수준 | 2 | 2.23 |
| 집단범주화*개인 수행수준 | 2 | 1.58 |
| 집단 수행수준*개인 수행수준 | 1 | 10.31** |
| 집단범주화*집단 수행수준*개인 수행수준 | 2 | 6.08* |

+ p < .10, * p < .05, ** p < .01.

그리고 이에 대해서 3(집단범주화) × 2(집단의 수행수준) × 2(개인의 수행수준)로 빈도분석(linear analysis)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그림 1을 보면, 먼저 내집단 수행수준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집단이 성공한 조건(12.76%)보다 집단이 실패한 조건(35.42%)에서 외집단 구성원을 더 선택하였다($\chi^2 = 7.50, p < .01$). 따라서 가설 1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의한 주효과는 내집단의 수행수준 × 개인의 수행수준의 이원상호작용 효과($\chi^2 = 10.31, p < .01$)로 인해 그 해석이 제한된다.

즉, 집단이 실패한 조건에서는 개인이 실패했을 때(18.75%)보다 개인의 성공했을 때(52.08%) 외집단 구성원을 더 선택하였다($\chi^2 = 17.97, p < .001$). 그러나 집단이 성공한 조건에서는 개인이 성공했을 때(6.38%)와 개인이 실패했을 때(19.14%)에 선택빈도의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가설 2가 지지되었다.

또한 집단범주화 × 집단의 수행수준 × 개인의 수행수준의 삼원상호작용의 효과도 유의하였다($\chi^2 = 6.08, p < .05$). 이를 집단 범주화의 특출성 수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단 범주화 특출성이 높은 조건 내에서 남성동

성 조건을 살펴보면, 집단이 실패한 경우에 개인의 수행 수준에 따라 외집단 구성원을 선택한 빈도가 유의하게 달라졌다($\chi^2 = 9.17, p < .01$). 구체적으로 보면, 집단이 실패한 조건에서 개인이 실패했을 때(6.7%)보다 개인이 성공했을 때(53.33%)에 외집단 구성원을 더 선택하였다. 그리고 여성동성 조건에서도 집단이 실패한 경우에 개인의 수행 수준에 따라 외집단 구성원을 선택하는 빈도가 유의하게 달라졌다($\chi^2 = 42.37, p < .001$). 즉, 남성동성의 조건과 유사하게, 여성동성 조건에서도 집단이 실패한 조건에서 개인이 실패했을 때(6.7%)보다 개인이 성공했을 때(73.3%)에 외집단 구성원을 더 선택하였다. 다만 혼성 조건에서는 개인의 수행 및 집단의 수행 수준에 따라 외집단 구성원을 선택하는 빈도에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가설 3-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개인이 동전략을 덜 선택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이는 집단 범주화가 특출하면서 집단이 실패하고 자신은 성공한 조건에서 남성동성 조건과 여성동성 조건을 비교하면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가설과는 반대로 나타났는데 남성동성

조건(55.33%)보다 여성동성 조건(73.33%)에서 개인이동전략을 더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의도

본 연구에서는 부가적으로 각 조건에 따라서 개인이동전략을 사용하는 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아보았다. 의도를 측정하는 두 문항의 개인별 평균을 구해서 이에 대해 3(집단범주화) × 2(집단의 수행수준) × 2(개인의 수행수준)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도의 각 조건별 평균 및 표준편차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집단 수행 수준의 주효과가 유의했다 ($F_{(1,178)}=26.24, p<.001$). 즉, 집단이 성공했을 때 ($M = 2.84$)보다 집단이 실패했을 때 ($M = 3.58$)에 외집단 구성원을 선택하려는 의도가

높았다. 이는 앞서 외집단 구성원을 선택한 행동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집단 수행수준 × 개인의 수행수준의 이원상호작용 효과($F_{(1,178)}=12.62, p<.01$)와 집단범주화 × 집단의 수행수준 × 개인의 수행수준의 삼원상호작용 효과($F_{(1,178)}=13.17, p<.01$)도 모두 유의하였다.

집단의 수행수준과 개인의 수행수준의 이원상호작용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집단이 실패한 조건에서 개인 수행수준의 단순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집단이 실패한 조건에서는 개인이 실패했을 때 ($M = 3.21$)보다 개인이 성공했을 때 ($M = 3.94$) 외집단 구성원을 선택하려는 의도가 더 높았지만, 집단이 성공한 조건에서는 개인 수행수준에 따라 외집단 구성원을 선택하려는 의도의 차이는 없었다.

표 3. 각 조건별 외집단 구성원 선택 의도의 평균(표준편차)

| 집단범주화 | 집단수행수준 | 개인성공 평균(표준편차) | 개인실패 평균(표준편차) | 전체 평균(표준편차) |
|-------|--------|------------------|------------------|----------------|
| 남성동성 | 성공 | 2.27 (1.18) | 3.50 (1.44) | 2.88 (1.44) |
| | 실패 | 4.17 (1.38) | 2.97 (1.17) | 3.57 (1.40) |
| | 전체 | 3.22 (1.59) | 3.23 (1.32) | 3.23 (1.45) |
| 여성동성 | 성공 | 2.60 (0.93) | 2.43 (1.03) | 2.52 (0.97) |
| | 실패 | 4.00 (1.21) | 3.07 (1.13) | 3.53 (1.25) |
| | 전체 | 3.30 (1.28) | 2.75 (1.11) | 3.03 (1.22) |
| 혼성 | 성공 | 3.24 (1.02) | 2.97 (1.27) | 3.10 (1.14) |
| | 실패 | 3.72 (1.39) | 3.56 (1.39) | 3.64 (1.37) |
| | 전체 | 3.49 (1.23) | 3.27 (1.35) | 3.38 (1.28) |
| 전체 | 성공 | 2.72 (1.10) | 2.97 (1.30) | 2.85 (1.21) |
| | 실패 | 3.95 (1.32) | 3.22 (1.25) | 3.58 (1.33) |
| | 전체 | 3.34 (1.36) | 3.09 (1.28) | 3.22 (1.32) |

유의한 삼원상호작용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집단 범주화의 특출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집단이 실패한 경우 개인의 수행수준에 따라 외집단 구성원을 선택하려는 의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성동성 조건에서 집단이 실패한 경우, 개인이 실패했을 때($M = 2.97$)보다 개인이 성공했을 때($M = 4.17$) 외집단 구성원을 선택하려는 의도가 더 높았다. 여성동성 조건에서도 집단이 실패한 경우, 개인이 실패했을 때($M = 3.07$)보다 개인이 성공했을 때($M = 4.0$) 외집단 구성원을 선택하려는 의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집단 범주화의 특출성이 낮은 혼성조건에서는 개인 수행수준에 따라 외집단 구성원을 선택하려는 의도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집단 범주화가 특출하면서 내집단이 실패하고 개인이 성공한 조건에서 성별에 따라 외집단 구성원을 선택하려는 의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도 앞서 외집단 구성원을 선택한 빈도를 알아본 행동 측정치에서 얻은 결과와 유사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성공과 실패, 그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 성공과 실패가 그 집단에 여전히 남고자 하는지 혹은 떠나려 하는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았다. 또한 이러한 결정에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동일시나 정체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서, 집단범주를 특출하게 해주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도 함께 알아보았으며, 이러한 경향에서 성차가 존재하는지 검토하였다.

결과를 요약해 보면, 자신이 속한 집단이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외집단 성원과 다음 과제를 함께 수행하고자 하였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경쟁에서 실패하면, 그 집단을 떠나서 새로운 집단 혹은 성원과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집단이 실패한 경우에 집단에서 긍정적 정체감을 얻을 수 없으므로 다른 집단으로 옮기고자 개인이동전략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한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집단이 실패하면 다른 집단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은 개인의 수행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졌다. 즉, 경쟁에서 실패한 집단에 속해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개인적 수행이 우수했던 사람은 다른 집단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더 높았다. 반면에 개인적 수행까지 저조했던 사람은 집단에 남아 있으려는 경향이 더 높았다. 즉, 집단이 경쟁에서 실패했을 때 다른 집단으로 떠나려는 경향은 35.42%였는데, 여기에 개인의 성공이 더해지면 개인이동전략의 사용은 52.08%로 다소 높아지며, 실패가 더해지면 18.75%로 상당히 낮아졌다. 이를 보면, 개인의 성공으로 인해서 외집단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높아졌지만 개인의 실패로 인해서 남아있으려는 경향이 더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기제로, 실패한 집단 내에서 실패한 사람은 다른 집단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긍정적 정체감을 회복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집단에 남아서 다시 한번 경쟁에 참여하려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가정이므로 장차 연구를 통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열등한 집단에서 우수한 개인이 그 집단을 떠나려는 결정은 집단간 경쟁을 얼마나 인식하였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졌다. 즉, 집단간 경

쟁이 인식되어서, 집단간 범주화가 특출하게 지각된 상황에서는 집단의 성공 혹은 실패에 의해서 더욱 영향을 받았다. 이로 인해서 집단간 경쟁이 특출해진 상황에서 집단이 실패했지만, 자신의 수행은 우수했던 사람은 집단을 떠나서 다른 사람과 다음 번 수행을 함께 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이 조건에서 얻은 결과는 흥미롭다. 먼저 본 연구의 가정과 다른 예측도 가능하다. 즉, 집단간 경쟁이 특출해진 조건에서는 집단에 대한 몰입이나 동일시 수준이 높아서 이러한 경우에 자신이 속한 집단이 실패하였다면, 오히려 그 집단에 계속 남아서 다시 과제에 도전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부가적 측정치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그와 다른 현상이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즉, 내집단에 대한 자기 정체감을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때, 집단 범주화 수준이 특출한 조건이 그렇지 않은 조건에 비해서 집단에 몰입하는 수준이 낮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집단 범주화가 특출해진 조건에서 집단은 실패하고 개인이 성공하게 되면 다른 조건들에 비해서 집단에 몰입하는 수준이 가장 낮았고, 이는 남성동성 조건에서 유사하였다(남성동성 $M = 3.98$: 여성동성 $M = 3.64$).

그렇다면, 집단간 경쟁이 인식되어 범주화가 특출한 조건에서 집단이 실패하고 자신은 우수한 수행을 이루었을 때 왜 몰입 수준이 낮아지는가?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 종속치로써 사용한 외집단 성원을 선택한 빈도는 함께 수행했던 사람에 비해서 외집단에 속했었지만 성별은 방금 전까지 자신과 수행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을 선택한 결정으로 측정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동성조건에서 외집단 성원으로 옮겨 가기로 결정했을 때, 여전히

그 외집단 성원은 자신과 동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른 집단 범주화가 특출해진 조건에서 집단은 실패하고 개인이 성공한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실패한 동성으로 구성된 집단에 머물기보다는 새롭게 동성으로 팀을 이루어서 다시 집단간 경쟁을 시도해 보고자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새롭게 팀을 구성하여 현재 손상된 긍정적 정체감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반영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이도 장차 연구를 통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과 성별이 같은 사람과 함께 집단 과제를 수행하여 경쟁에서 실패했을 때 개인의 수행은 우수했다면 다른 집단으로 옮겨가고자 선택하는 경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알아보았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집단간 경쟁상황에서 좀 더 경쟁적이고 내집단 편애적이라는 점에 기인하여 내집단에 좀 더 남으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했다. 결과를 보면, 주 종속치에서 성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실제 외집단 성원을 다음 과제에서의 파트너로 선택한 빈도에서도 남성동성 조건과 여성동성 조건에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본 연구의 가설과 반대로 남성동성 조건은 약 53%, 여성동성 조건은 약 73%로서, 남성은 이러한 경우에 10명 중 5명이, 여성은 10명 중 7명이 집단을 떠나려 결정하여서, 다소 차이를 드러내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물론 빈도분석이 변량분석에 비해서 유의한 차이를 감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변량분석을 실시한 의도나 몰입 수준에서도 이 두 조건에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를 보면, 집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수한 개인이 그 집단을 떠나는 현상은 여성에게서 유의하

게 더 높아진다고 추론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가설과 달리 여성동성 조건에서 개인이동전략을 더 선택하는 경향이 나왔는데, 실제 본 연구에서 외집단을 선택하게 되어도 또 다른 여성동성 집단이 되기 때문에, 팀 구성원을 바꾸었지만 동성의 집단으로 좀 더 경쟁하려는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여성동성 집단과 남성집단 사이에 성별 정체성이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각 조건에서도 정체성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대한 다른 설명으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 자체가 참가자들에게 낯선 과제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참가자들이 성별에 따라 과제에서 수행수준이 달라진다고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성별에 따라 집단 과제 수행에 몰입한 정도나 수행기대가 달라지지 않아서, 과제를 다시 시도할 때에 성차에 따라서 개인이동전략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도 역시 장차 연구를 통해 성차를 예측하게 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게 조작하여서 차별적인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혼성 집단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이 혼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호의도가 외집단 구성원을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²⁾. 특히 동성 집단의 경우에 동성 파트너를 바꾸지만, 혼성 집단의 경우에 이성 파트너를 바꾸는 상황이어서 파트너에 대한 호의도가 개인이동전략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외집단 구성원을 더 선택하였다면 여성에 대한 비호감이나 부정적인 인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

지만 부가측정치로 상대방에 대한 호의도를 응답하게 하였고, 이를 분석했을 때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주효과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호의도가 동성이나 혼성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이 점이 다시 개인이동전략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호의도는 측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호감도 뿐만 아니라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호감도를 같이 측정하여, 외집단 구성원을 선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면 이러한 문제가 영향을 주었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호의도 문제 이외에 동성과 혼성 조건에서 파트너를 변경하는 수준이 동일하게 조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집단 범주화가 특출해지도록 기대한 동성 조건에서는 외집단 성원으로 파트너를 바꾸더라도 여전히 동성과 수행하게 되지만, 혼성 조건에서는 파트너를 바꾸게 되면 외집단 성원이면서 이성인 사람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내/외집단 성원 여부와 성별의 효과가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내집단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정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 중에서 개인이동전략이 각 조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았다. 특히 이러한 전략의 사용을 외집단 구성원을 직접 선택하게 함으로써 행동적인 면을 측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2) 이 가능성에 대해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동성의 집단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집단이 실패하였을 경우에 개인이 성공하면 남성동성 집단에 비해서 여성동성의 집단에서 개인이동전략을 더 사용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기존의 연구들이 대인간에서 경험하는 성별 정체성이나 혹은 집단간에서 경험하는 성별 정체성의 각 수준에 의해서 전략을 선택하는지 알아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인간 및 집단의 정보가 동시에 경험되는 상황에서 개인이동전략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집단이 실패하고 개인이 성공하였을 때 내집단에 동일시하는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로부터 추론하면 내집단에 대한 동일시가 낮아져서 이는 다시 긍정적인 정체감을 낮추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다른 집단으로 이동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성별 정체감 수준을 측정된 결과를 분석했을 때 성별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정체감 회복 전략으로 외집단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더 보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과제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 범주화의 특출한 수준을 성별 범주화로 조작하였다. 즉, 집단 범주화의 특출성이 높은 조건은 동성의 집단과 혼성의 집단이 경쟁하는 상황으로 조작했고, 상대적으로 집단 범주화가 특출하지 않은 조건은 혼성 집단과 혼성 집단이 경쟁하는 상황으로 조작하였다. 그러나 집단 범주화의 특출성이 높은 조건의 경우는 남성동성 집단과 여성동성 집단이 경쟁하도록 하면 특출

성 수준을 더욱 높게 조작할 수 있다. 그리고 집단 범주화의 특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조건은 동성 집단끼리 경쟁하는 상황으로 조작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집단간 범주화의 특출성에 따라서도 개인이동전략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장래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에서 얻은 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외집단 구성원을 선택하는 조건을 항상 외집단의 구성원 가운데 내집단의 파트너의 성별과 동일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고정해 놓았다. 이렇게 선택을 고정시켰던 이유는 외집단 구성원의 선택이 집단 범주로 인한 것인지 성별 범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혼입을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즉, 여성동성의 조건에서 선택의 범위는 옆 사람(여성)과 외집단의 여성 중에서 한명을 고르게 하였다. 만일 외집단 구성원을 한명 더 추가하여 옆 사람(여성), 외집단의 여성, 외집단의 남성 중에서 고르게 한다면, 이 경우에 외집단의 남성을 선택하였을 때, 이러한 선택이 단순히 내집단의 범주를 벗어나기 위한 선택인지 혹은 성별 범주를 벗어나기 위한 선택인지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서 파트너를 바꾸더라도 현재 파트너와 동성인 성원으로 유지되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점이 오히려 또 다른 혼입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조건을 추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대로 집단 범주화에서 성별 범주화와 수행에서의 내/외집단 범주화 변인이 혼입되어 있다. 장래 연구에서는 성별 범주화만을 조작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집단 성원과 외집단 성원에 대한 호의도로 모두 확인하여 앞서 언급한 대안설명의 가능성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소재용 (2002). 집단 수행에서 전문성, 과제 유형 및 수행의 확인가능성의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덕웅 (2002). 집단행동이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한덕웅, 장은영 (2001). 내집단과 개인의 수행 환류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5(2), 167-183.
- Bourne, G., Crum, L., Wittenbraker, J., Harring, K., Insko, C. A., & Thibaut, J. (1983). On the measurement of social orientations in the minimal group paradig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 369-381.
- Bourish, R. Y. (1994). Power, gender, and intergroup discrimination: Some minimal group experiment. In M. P. Zanna & J. M. Olson (Eds.), *The psychology of prejudice: The Ontario symposium* (pp. 171-208). Hilldale, NJ: Erlbaum.
- Forsyth, D. R. (1990). *Group Dynamics* (2nd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Gaertner, L., & Insko, A. C. (2000). Intergroup discrimination in the minimal group paradigm: categorization, reciprocation, or fea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1), 77-94.
- McFarland, C., & Buehler, R. (1995). Collective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Fog-pond effect in reactions to performance feedbac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6), 1055-1070.
- McIntyre, R., Paulson, R., & Lord, C. (2003). Alleviating women's mathematics stereotype threat through salience of group achievemen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 83-90.
- Mussweiler, T., & Bodenhausen, G. V. (2002). I know you are, but What am I? Self-evaluative consequences of judging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19-32.
- Schmader, T., & Major, B. (1999). The impact of ingroup vs outgroup performance on personal valu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5*, 47-67.
- Stangor, C., & Swin, K. J., & Van Allen, K. L., & Sechrist, B. G. (2002). *Journ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69-74.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33-47). Monterey, CA: Brooks-cole.
- Taylor, A., Wayment, H. A., & Carillo, M. (1993). Social comparison, self-regulation, and motivation.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Motivation & Cognition*. The Guildford Press.
- Worchel, S., Iuzzini, J., Coutant D., & Ivaldi, M. (2000). A multidimensional model for identity: relating individual and group

identities to intergroup behavior. In D. Capozza & R. Brown (Eds.), *Social Identity Processes: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pp.15-32). Thousand Oakes, New Delhi, London: Sage Publications.

Worchel, S., Andreoli, V. A., & Folger, R. (1977). Intergroup competition and intergroup attraction: The effect of previous interaction and outcome of combined effor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131-140.

1 차원고접수 : 2007. 10. 31.

심사통과접수 : 2007. 12. 25.

최종원고접수 : 2007. 12. 27.

Effect of Group Categorization, Group Performance Feedback and Individual Performance Feedback on Choice of Outgroup Member

Bo-Hyun Chang

In-Chon Child Protection Agency

Doug-Wong Hahn

Dep.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Eun-Young Jang

Institute of Applied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Present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uccess/failure feedback of group and individual on the choice of individual mobility strategy with a factorial design of $3 \times 2 \times 2$. In addition, the effect of social categorization was also tested. Salience level of social categorization was manipulated by gender composition of subjects of ingroup and success/failure of ingroup and individual was manipulated by a feedback of performance after novel perceptual test. The experimental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who were informed that their group failed, chose outgroup member as their partner at the next test more than those who were informed that their group succeeded. Also, in the condition of ingroup failure, participants who informed their individual score was successful, chose outgroup member more than those informed their individual score was failure. Furthermore, significant three-way interaction showed that the choice of outgroup member among the participants who succeeded in failed group increased when social categorization was salient. Particularly, female subjects showed stronger response than mal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 categorization, ingroup performance, individual performance, individual mobility.